

## 독버섯

김 가 영  
진원동초등학교 3학년

지난 가을의 이야기다.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갔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진 나무 위에 앉았다. 그런데 그 아래 빨간 버섯들이 여러 저기 자라나고 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여기 예쁘고 빨간 버섯들이 있어요. 이 버섯들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국을 끓여 달라고 해요.”

“아니 이걸 독버섯이잖아, 가영아, 이 버섯은 독성이 있어서 사람이 먹으면 해롭단다. 심할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어. 버섯은 독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지. 독성이 있는 버섯은 애광대버섯, 마귀광대버섯, 암회색광대버섯아재비, 삿갓외대버섯, 굵은외대버섯, 독갈대기버섯, 화경버섯, 독송이, 거북송이, 담갈색버섯 등이 있지. 독버섯은 여러 종류가 있지. 그러니 먹으면 큰일난단다.”

“할아버지, 그럼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어떤 버섯을 먹어야 하나요?”

나는 궁금해서 할아버지께 물었다.

“응, 좋은 질문을 했구나! 버섯을 먹고 싶으면 시장에서 파는 버섯을 먹어야지. 대개 여름에서 가을까지가 독버섯들이 자라는 시기야.”

버섯에 대해 많이 알게 된 나는 더 알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께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아무말 하지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나는 친구들에게 버섯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넌 정말 버섯에 대해 잘 아는구나!” 하고 칭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